

2017년 12월 22일, 애월읍 용흥리 용흥리노인회관, 강경민 조사.
강동수(남, 1942년생, 애월읍 용흥리)

- 줄거리: 동네 사람 세 명이 목장에서 벌을 관리하고 밤중에 내려오고 있었다. 소왕남도에
서 개울을 건너는데 도깨빗불이 왔다갔다 하는 게 보이자, 도깨비에게 흘릴까봐
옷을 벗어서 흔들다가 놔두고 왔다.

[조사자] 도체비 이야기는 안 들어봤나우과?

[제보자] 도체비 이야기는. 도체비는 우리 동네서 겪은 사람들이 있는데. 건 우리 동네서
가 아니라 저 목장에서. 옛날엔 목장에 숯 같은 거 굽고, 산에 강 일허당 막 밤
중돼언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났던가 봐.

우리 동네 사름 세 분이 목장에서 벌인가 목장에 놔두고 관리허다가, 밤 중 들
언 오는데. 어디 소왕남도라고 허는데. 그 내창 건너려고 내를 건너려고 허니까
육지는 다리가 없이 그냥 흐르믄 물 언제나 흐르는 게 아니니까. 길로 건너는.
거긴 오니까 비는 으슬으슬 오는데 불이 막 이리갔다 저리갔다 허니까.

[조사자] 어느 정도 험 불마썸?

[제보자] 게난 불은 예를 들면, 어린 애 주먹만씩 혈 테주. 추측이. 불이 그레 갔다, 저레
갔다. 혼자 잇엇이민 정신 나갈 정도로 경 허더라고. 경 허난. 겁 나그네 그거
불 옷벗엉 불 이레 갔다, 저레 갔다. 허는 거에 막 흔들리멍 옷 거기 벗어 놔동
왔다는 얘기는 들어난다. 그건 우리 어린 때 들엇거든.

[조사자] 도체비가 몸에 달라붙젠 헨마썸?

[제보자] 응.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헛젠. 셋이니까 견뎌졌덴. 우리 어릴 때 도체빗불 만났
정신 홀령 허는 얘기 많이 들어났어. 어떤 사람은 굶도 허더라고. 그 귀신 쫓젠.

[조사자] 도체비 만나민 피 내우민 뵈다. 돌 닥닥 소리 내민 뵈다 허는 소리는 들어났우과?

[제보자] 응. 우리 어릴 때도 그런 말 들어났어. 피 내우민 뵈다고. 여기도 사람 죽어난
디 그 옛날 폭도들이 군인들 허고 싸완. 총 맞앙 죽어난 디. 죽영 내창에 내 불
엇어라. 영 헌디 비 오젠 허민 거기 도체빗불 나오메. 그렇게들 허더라고. 그디
도체빗불 보인덴.

- 핵심어: 소왕남도, 도체빗불(도깨빗불), 돌 소리, 굶, 피, 벌, 목장, 도체비(도깨비)